

베트남은 왜 수출을 관리하기 시작했나

[오피니언]

원산지 이후 새롭게 등장한 통상 규제 :

희토류 수출금지·전략물자 수출통제 체계 도입 (11p)

[이주의 초점]

정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관세법」, 「환특례법」, 「관세사법」 시행령 등 관세법령 개정 (4p)

[위클리뉴스]

"주꾸미 학명 바뀌어도 품목분류는 그대로"

제0307.52-3000호 유지

관세청장 직속 '마약척결 대응본부' 출범...

매주 대책 점검

미 품목관세 '특정 반도체 및 그 파생제품'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6p)

[판례 동향]

태양광 모듈용 강화유리 품목분류 판례해설 (17p)

[품목분류 동향]

HS 2022 해설서 식품 관련 주요 개정 사항 (28p)



발행인 이종우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mjk2413@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마케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6년 1월 26일(통권 제2164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정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 「관세법」·「환특법」·「관세사법」
시행령 등 관세법령 개정

판례동향

- 17** 관세판례해설
태양광 모듈용 강화유리 품목분류 판례해설

06 Weekly News

품목분류동향

- 28** 품목분류해설
식품 관련 HS 2022 해설서 개정 사항
- 34** 세번 바로잡기
동물성 비료

오피니언

- 11** 시선, 베트남 통관
이여람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 활용센터(관세사)
베트남은 왜 수출을 관리하기 시작했는가

관세행정실무해설

- 15** 질의응답사례
협정관세 적용
-

정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 「관세법」·「환특법」·「관세사법」 시행령 등 관세법령 개정

올해부터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 발급하고 간이정액환급 방식 수시 선택 가능

재정경제부는 오는 2월 말 시행을 앞둔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월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을 담았다. 그 중 관세법령과 관련된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관세사법 시행령」 3개 법령에 13개 개정안이 포함됐다.

먼저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 간이정액환급 적용 여부 변경 제한 기간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관세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편의를 위해 납부세액과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수출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기업은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 중 선택해야 한다.

제도변경 전에는 관세환급 방식을 한 번 결정하면 2년간 변경할 수 없었으나, 이번 제도변경으로 중소기업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관세환급을 받는 방식을 수시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이 간이정액환급에서 개별환급으로 변경할 경우 제한 기간이 폐지되고, 개별환급에서 간이정액환급으로 변경할 경우 제한 기간은 1년으로 축소된다.

● 관세환급 방식 변경 제한 기간 ●

	현행	변경
간이정액환급 → 개별환급	2년	삭제
개별환급 → 간이정액환급	2년*	1년*

*소요량 계산 곤란 등 사유 시 제한 없음

소액 탁송품이나 우편물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표권 보호의 간소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장이 상표권자, 화주 등에게 침해의심 사실을 통보하면 상표권자는 통관보류를 희망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화주 등은 미침해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이를 근거로 세관장은 통관보류 또는 유치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했다.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및 재심사 결정 기간이 확대됐다.

종전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 필요한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한 기간에 잠정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결정을 1개월 이내, 필요한 경우 1개월 연장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심사 결정 기한

예외도 신설돼 재심사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심사 필요 여부 결정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결정을 1개월 연장한 기간 내에 할 수 있게 했다.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편의를 위해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가 신설됐다.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수입원재료 납부세액 등을 증명하는 자료로 그동안 세관이 발급하던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가 전산처리설비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 기간은 지정 후 3년이며, 취소 또는 갱신이 가능하다.

또한 승객예약자료 일부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승객예약자료를 항공사 전산시스템 저장 탑승자 정보 21건에 대해 전부 미제출할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승객예약자료 10% 이상 미제출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은 10년 이내로 연장된다. 반도체 장비 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기존 3년 이내는 짧은 기간이라는 업계의 애로가 반영된 결과다.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제외 사유 판정을 위한 채납액 납부비율 계산방식이 변경됐다.

지금까지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비율을 계산했으나, 변경된 방식에 따르면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 초일부터 관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비율을 계산하도록 했다.

관세사의 휴업·폐업 및 사무소 이전·폐지 신고, 통관취급법인 등의 사무소별 1명 이상의 관세사 배치 규정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관세사의 휴·폐업 및 사무소 이전·폐지 미신고 시 30만원, 통관취급법인 등의 사무소별 1명 이상의 관세사가 배치되지 않으면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행객이 천재지변이나 여객기·여객선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될 경우 구매한 면세품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면세품은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어 출국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을 경우 구매한 면세품을 회수·반품 조치를 해야 해 여행객들과 보세판매장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 면제 한도 이내의 물품만 회수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 외에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항목에 신고인 정보, 위험물품 해당 여부, 담보 정보 및 보세운송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으며, 물품원가 기준 통고처분 대상에 명의사용죄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하구현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꾸미 학명 바뀌어도 품목분류는 그대로” 제0307.52-3000호 유지

관세청이 주꾸미의 학명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품목분류 체계는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월 22일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 품목분류결정에서는 학명이 변경됐음에도 수산물 품목분류는 유지됐다는 점이 이목을 끈다. 쟁점이 된 품목은 주꾸미를 절단해 소매포장한 후 냉동한 물품이다. ▲옥토퍼스(Octopus) 속의 주꾸미(제0307.52-3000호, 한·ASEAN FTA 0%), ▲기타의 연체동물(제0307.92-9000호, 한·ASEAN FTA 5%)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품목분류 체계에서 주꾸미는 ‘옥토퍼스(Octopus)속’의 것으로 분류되나, 최근 학명이 ‘암피옥토퍼스(Amphioctopus)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심의 결과 분류학적 명명 변경일 뿐 HS 품목분류 체계 변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문어·낙지와 형태적 유사성을 고려해 동일 소호로 분류해 온 기존 기준에 따라 제0307.52-3000호의 ‘주꾸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은 학명 변경에 따른 수산물 품목분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련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해당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 안건으로 상정해 학명 변경 시 품목분류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

연번	대상물품	결정
1	분산제어시스템 인풋 모듈(INPUT MODULE)	제8543.70-9090호(기본 8%)
2	분산제어시스템 아웃풋 모듈(OUTPUT MODULE)	제8543.70-9090호(기본 8%)
3	전해동박 제조기 전극판(DSE ANODE)	제8543.90-9000호(WTO양허 0%)
4	신발	제6402.99-9000호(한·중 FTA 13%)
5	전기레인지 전기 발열체(EGO HiLight)	제8516.80-0000호(한·EU FTA 0%)
6	의료영상 수집기기(Imaging Catheter Kit)	제9018.19-9000호(WTO양허 0%)
7	가금류 비타민 합제(ADEK-C)	제2309.90-2030호(WTO양허 50.6%)
8	냉동한 주꾸미(FROZEN WEBFOOT OCTOPUS)	제0307.52-3000호(한·ASEAN FTA 0%)
9	CPU 쿨러(WATER COOLING CPU COOLER)	제8473.30-9090호(WTO양허 0%)

출처 : 관세청

또한 위원회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의 발열을 냉각액과 팬으로 냉각시키는 CPU 쿨러에 대해 제8473호의 '컴퓨터 부품(WTO 양허 0%)'으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이 팬, 방열판, 튜브, 펌프 등 여러 구성요소가 결합돼 CPU 냉각이라는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고,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WCO의 분류 기준과도 일치하는 이번 결정은 최근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냉각 시스템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업계의 분류 혼선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이번 위원회에서 분산제어시스템 인풋·아웃풋 모듈과 전해동박 제조기 전극판, 전기 레인지 전기 발열체 등 총 9건의 품목분류가 결정됐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올해부터는 수입신고를 마친 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바로잡으면 추가로 납부한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하구현 기자 |

관세청장 직속 '마약척결 대응본부' 출범 … 매주 대책 점검

관세청은 2026년 국경 단계 마약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마약척결 대응본부'를 새롭게 출범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대응본부는 통관·감시·조사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전국 세관 마약단속 조직이 모두 참여한다.



1월 21일, 2025년 마약 적발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는 이명구 관세청장(출처 : 관세청)

관세청은 1월 21일 서울세관에서 이같이 대응본부를 출범하고 매주 마약 적발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단속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명구 관세청장은 같은 날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마약류가 총 1,256건, 3,318kg에 달하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적발 건수는 46%, 중량은 무려 321% 증가한 수치다.

밀수 경로별로 보면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여행자 밀수는 적발 건수가 215%, 중량은 100% 증가하며 주요 반입 경로로 부상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국제 여행객 수가 급증한 데다, 마약 성분 함유 의약품에 대한 단속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해외여행객 수는 2023년 3,190만명에서 2024년 4,286만명, 2025년에는 4,636만명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1kg 이상 대형 밀수 사례도 2023년 24건(130kg)에서 2025년 44건(243kg)으로 크게 늘어, 밀수 규모의 대형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에 대응해 마약 우범 여행자 선별을 확대하고, 입국심사 전 검사와 적극적인 신체 검색, 전국 공항·항만의 마약 전담 검사대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에는 케타민, LSD, MDMA 등 이른바 ‘클럽마약’ 적발도 크게 늘었다. 특히 케타민은 적발 건수와 중량 모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kg 이상 대형 밀수 사례가 급증했다. 관세청은 유럽·동남아발 공급망 차단에 집중하는 한편 청소년·청년층 대상 마약 오남용 예방 교육과 온라인 캠페인도 병행할 방침이다.

단속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강화되자 지방공항을 통한 우회 밀반입 시도도 늘었다. 2025년에는 지방공항에서만 총 36건, 87kg의 마약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 장비를 전국 공항으로 확대 설치하고, 지방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인천공항의 정보 분석·판독 기법을 공유하는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페루발 1,690kg(강릉 옥계항), 에콰도르발 600kg과 300kg(부산신항) 등 지방 항만에서 대형 밀수가 연이어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남미 마약 카르텔이 북미의 국경 통제 강화로 아시아 시장을 새로운 목표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이같은 흐름이 국내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관세청은 해외 마약단속기관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중남미발 선박과 컨테이너에 대한 집중 검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태국, 네덜란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등 5개국과 국제 합동단속 작전 이외에 올해에는 프랑스, 독일, 캐나다, 캄보디아, 라오스 등으로 국제 합동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대응본부를 통해 국경단계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김성은 기자 |

품목관세 ‘특정 반도체 및 그 파생제품’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관세청이 특정 사양의 반도체 및 그 파생제품의 품목관세 부과대상을 반영한 연계표를 공개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1월 14일(현지시간) 특정 반도체 및 파생제품을 대상으로 품목별 관세를 미 동부시간 기준 1월 15일 0시 1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연계표는 미국측의 관세 부과 대상 품목군(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중대형차량, 중대형차량부품, 버스, 반도체)별로 HSK순으로 정리하고, HSK 별 한글품명이 포함돼 있다.

연계표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 '관세무역동향'과 FTA 포털(www.customs.go.kr/fta_portalkor/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올해 수출하면 다음 해 부과되는 '탄소관세', 업계 주의 필요

정부는 내년부터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탄소관세를 기업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함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월 21일 관세청,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에서 우리 업계의 제도 대응 동향을 살피고, 2023년부터 지원해 온 각종 사업을 다시 점검했다.

통상 수입 관세는 수입통관 시점에 부과되는 데 반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수입 탄소관세는 수입통관이 이뤄진 다음 해에 부과된다. 가령 유럽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 수출한 해에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면 그 결과를 그다음 해에 검증받는 식이다. 수출기업이 CBAM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당장은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내년에 EU의 수입업자의 요구로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관련 협·단체와 협력해 수출기업에 CBAM 제도 대응 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고, 관련 지원사업도 최대한 활용해 업계가 탄소배출량을 문제없이 산정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 하구현 기자 |

한·이집트 통상 당국, '한·이집트 CEPA' 추진 공동선언문 서명

한·이집트 통상당국이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공식화했다. 또 우리 기업의 미래 생산·물류 거점으로 잠재력이 큰 수에즈운하 경제특구 진출 방안에도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18일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해 하산 엘-카티브 투자 통상부 장관 및 왈리드 가말 엘-딘 수에즈운하 경제특구청장과 회담을 갖고 ▲CEPA 추진, ▲수에즈특구 내 우리 기업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이집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통상·산업 분야 주요 과제의 후속 조치 및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담에서 양국 통상장관은 한·이집트 CEPA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양국의 CEPA 추진 의지와 협상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여 본부장과 수에즈운하 경제특구청 청장은 수에즈특구가 중동·유럽·아프리카를 잇는 지정학적 이점과 이집트의 풍부한 노동력 및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미래 생산·물류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여 본부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수에즈특구청 간 정례 협의체를 설립해 상시 협력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수에즈특구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미국-이집트-이스라엘 간 QIZ(Qualifying Industrial Zone) 협정을 활용해 미국에 특혜 조건으로 수출이 가능한 이점이 있어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산업부는 수에즈특구 방문 결과 등을 반영한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이집트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하구현 기자 |

산업부, 기업이 묻고 유튜브로 답하는 '미 관세대응 꿀팁' 배포

산업통상부는 1월 21일 관계 기관과 함께 '산업부 김 사무관이 알려주는 미 관세대응 꿀팁' 영상 시리즈를 제작해 배포했다. 최근 주요국 보호무역 조치 확대로 수출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무역·통상 관련 기업으로 해소를 위해 디지털을 통한 무역·통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영상은 비특혜원산지 규정,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산출, 관세환급·사후검증 등 기업이 주로 혼란을 겪는 이슈를 산업부 관세대응 담당 사무관이 직접 출연해 3대 핵심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한미 FTA 원산지기준(특혜)		비특혜 원산지기준	
FTA 체결국 품목 대상 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 부여	목적	상호관세, 품목관세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한미 FTA 협정문 제6장	근거	미 연방규정 19 CFR 134	
※ 세부 규정이 명확 HS코드별 규정된 기준 (세번변경, 부가가치 등)	기준	※ 세부 규정이 없음 실질적 변형 여부 판단	

현재 미국정부가 시행 중인 상호관세

출처 : 통상TV '산업부 김 사무관이 알려주는 미 관세대응 꿀팁' 캡처

산업부는 '관세대응 119 리포트'도 격주 단위로 배포한다. 리포트에는 범정부 관세애로 통합상담 창구인 '관세대응119'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11개 협력기관이 참여해 글로벌 보호무역조치 동향, 범정부 주요 지원사업, 기업대응 사례 및 전문가 칼럼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 하구현 기자 |

시선, 베트남 통관

2025년 8월 11일 또 럽 베트남 당 서기장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의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베트남의 관세·통관 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근무하는 KOTRA 무역관, 이여람 관세사에게 베트남의 강화된 통상 규제에 관한 실무적 조언을 들었다.

베트남은 왜 수출을 관리하기 시작했는가

- 원산지 이슈 이후 등장한 새로운 통상 규제 : 희토류 수출금지·전략물자 수출통제 -



이 여 람 |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 활용센터(관세사)

(※ 본 콘텐츠는 2025.11.24. 발행된 본지 제2156호 '오피니언-시선, 베트남 통관'에서 이어집니다)

1. 들어가며

지난 칼럼에서는 원산지 이슈의 관점에서 베트남산 수출이 직면한 리스크를 살펴봤다. 상호관세 시대를 맞아 원산지 관리와 사후검증이 강화되면서, 베트남을 생산·수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의 부담 역시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원산지 이슈를 넘어, 최근 베트남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통상 규제가 수출 통관에 미치는 또 다른 리스크를 살펴보고자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희토류 원광 수출금지' 조치와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된 '전략물자 무역통제 시행령' 제정이다.**

이 두 제도는 모두 베트남정부가 전략산업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도입된 것으로, 향후 베트남발 수출 통관 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칼럼에서는 해당 정책의 주요 내용과 함께, 앞으로의 베트남 수출 통관 방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왜 희토류와 이중용도물품인가

베트남이 수출관리 강화의 대상으로 희토류와 이중용도물품(Dual use item¹⁾)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의 결과다. 그 배경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희토류와 이중용도물품이 첨단산업과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재생에너지, 방위산업 등 주요 전략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자원이며, 이중용도물품은 민간과 군사적 용도가 중첩되는 특성상 국제적으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품목이다. 이러한 품목에 대한 통제는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둘째, 베트남의 산업 구조가 단순 가공·조립 단계에서 첨단 제조 단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 컴퓨터, 반도체 등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면서, 베트남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을 경유하는 전략물자와 민감 품목의 이동 가능성도 함께 증가했고,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우회수출이나 통제 회피의 경로로 인식될 위험이 커졌다. 수출통제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기술 협력 관계에서 제도적 신뢰를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과 EU 등 주요 교역국은 기술 이전, 첨단산업 투자, 공급망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수출통제 체계의 존재 여부를 점점 더 중시하고 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희토류와 이중용도물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투자 유치와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희토류와 이중용도물품에 대한 수출 관리는 베트남이 글로벌 생산기지에서 전략산업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선택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규제 도입은 단기적인 수출 규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3. 기업이 주목해야 할 베트남 수출 규제의 변화

1) 희토류 원광 수출금지 제도의 핵심 내용²⁾

개정법은 희토류를 ‘특별 전략 광물’로 분류하고, 지질 조사부터 탐사·채굴·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 희토류 전략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관련 활동은 국가가 지정하거나 허가한 기관과 기업으로 제한돼 관리·통제가 대폭 강화됐으며, 원광 형태의 희토류 수출은 금지됐다.

1) Dual use item means items that are normally used for civilian purpose but can also be used for the development, production, or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onventional weapons.(Decree No. 259/2025/ND-CP Article 3)

2) KOTRA 베트남 비즈니스뉴스 ‘베트남, 희토류 수출 금지 개정법 채택’

이는 단순 원자재 수출을 지양하고 국내 정제·심층 가공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로 전환하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계 도입³⁾

시행령 Decree 259는 부록 I에서 이중용도품목 통제의 기본 틀만 제시하고 있으며, 품목별 HS Code와 기술·공학적 사양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소관부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HS Code, 품목 설명 및 기술·공학적 사양을 포함한 세부 이중용도품목 통제목록을 별도로 제정하게 되며, 기업은 해당 목록에 포함된 품목에 대해 수출, 재수출, 임시수입, 환적 또는 통과 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은 이중용도물품의 성격에 따라 소관 부처를 구분하고 있으며, 주요 관리 대상 분야는 다음과 같다.

소관 부처	분야
과학기술부	방사성 물질 및 핵 장치
	전자제품(방사선 내성 집적회로 등)
	컴퓨터
	통신·센서·레이저
산업무역부	전자제품(600Hz 이상 작동 주파수 변환기 등)
	화학
	금속·합금
	무인 항공기
건설부	항공
	해양
보건부	인체 감염성 병원균 및 독소

자료: Decree No. 259/2025/ND-CP 부록 I

허가는 부록 I에 지정된 각 부처가 발급하고 산업무역부(MoIT,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of Vietnam)가 이를 총괄·조정하며, 허가 유형은 선적 허가⁴⁾와 기간별 허가⁴⁾로 구분돼 기업은 내부 거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적절한 허가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구분	선적 허가	기간별 허가
정의	특정 1회 선적에 대해 발급되는 허가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인 거래에 적용 가능한 허가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적용 범위	개별 거래 1건(1회 선적)	다수 선적 또는 반복 거래
수량 제한	선적 단위로 승인된 수량만 허용	유효기간 내 수량 제한 없음
적용 대상	일반 기업, ICP ⁴⁾ 미도입 기업	ICP 기업
적합 기업	비정기적 거래 기업, 신규 기업	정기 공급 기업, 장기계약 기업

자료 : Decree No. 259/2025/ND-CP 제8조

3) KOTRA 하노이무역관 '베트남 전략물자 수출통제 주요 사항' 자료

4) 내부준수프로그램(ICP, Internal Compliance Program)

4.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베트남 수출 통관과 기업의 대응

향후 베트남 수출 통관 환경은 품목과 기술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점진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 원광 수출금지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단일한 규제 조치라기보다는, 베트남정부가 전략 산업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수출 통관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축을 이동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에 따라 베트남을 생산·수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단순한 통관 요건 충족을 넘어, 취급 품목의 전략적 성격과 규제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희토류 관련 원자재 및 부품을 다루는 기업이나, 전자·반도체·정밀기계 등 이중용도물품과 연관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수출 계약 단계부터 규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통관 리스크는 특정 시점의 규제 준수 여부가 아니라, 공급망 구조 전반과 연결돼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 내 가공·정련 여부, 기술이전 범위, 최종 수출국, 거래 상대방의 성격 등에 따라 통제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 내부의 원산지·통관·수출통제 관리 기능 간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베트남의 수출 통관 환경은 '신속한 통관'보다는 '관리 가능한 통관'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은 규제를 사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책 변화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FTA / 협정관세 적용

미국 판매자를 통해 직접 구매(직구)하고자 하는 신발의 원산지가 베트남인데, 한·미 또는 한·베트남 FTA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정대상국의 원산지 물품임을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서가 구비돼야 하며,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미 FTA의 경우,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은 면제되고,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원산지 : 미국) 후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발 특송화물로 물품가액 200달러 이하 목록통관 가능 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안과 같이 물품가액 200달러를 초과하는 베트남산 신발을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원산지가 미국산이 아니므로 한·미 FTA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발의 원산지가 베트남산이라 하더라도 FTA 적용 기본 요건인 직접운송원칙(원산지국에서 한국으로 경유없이 운송)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베트남 FTA 적용도 불가능합니다.

수입 / 수입신고

해외 임가공 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작성 시 54번(결제금액) 항목에는 물품가격과 임가공료를 더한 금액을 기재해야 하나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1의2]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결제금액은 송품장(Invoice) 등의 내용에 근거해 기재해야 합니다.

해외 임가공 건의 경우 송품장에 명시된 가공임(물품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결제금액에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자가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해 해당 금액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결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지에서 조달한 원부자재가 있다면, 송품장에

명시돼 있고 수출자가 가공임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 결제금액에 포함돼야 할 것이며, 수입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등 가공임과 함께 청구되지 않는 경우 결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송품장은 판매자(수출자)가 구매자(수입자)에게 수출물품에 대한 대금결제 받을 내역을 기재해 발행하는 것이며, 실제 계약 내용에 맞게 결제금액을 기재하기 바랍니다.

품목분류 / 털 슬리퍼의 HS Code

털 슬리퍼의 품목분류를 알려주세요.

문의하신 물품이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기타'에 해당된다면 제6404.19-900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품목분류 사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결정 세번	제6404.19-9000호
물품 설명 바깥바닥은 플라스틱, 갑피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신발로, 앞은 막혀있고 뒤축은 개방돼 있으며, 바깥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 특정 무늬로 요철 성형된 것(밀창 두께 : 12~23mm) 용도 : 방한용 슬리퍼	관세율표에 '실내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문헌상으로 "건물 안에서만 신는 신(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슬리퍼'에 대해서는 "끈이나 금속 등으로 여미지 않고 그대로 발을 꿰어 신게 되는 신으로 주로 실내에서 신으며 뒷굽이 평평하고 낮다(출처 : 패션전문자료사전)"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결정 사유	본건 물품을 실내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지 보면, 본건 물품의 밀창 두께는 12~23mm로 두꺼워 바닥의 흙이나 먼지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있으며, 갑피는 외출 시에도 신을 수 있는 정도의 가공(스웨이드*, 파일**)이 돼 있고, 충분한 쿠션감과 미끄럼 방지용 요철 성형 등이 돼 있어 실내에서만 전용해 신는 신발로 볼 수 없음. * 스웨이드(Suede) : 가죽 뒷면을 보드랍게 보풀린 가죽. 또는 그것을 모방해 짠 직물(합성피혁 등으로 불림) ** 파일(Pile) : 특정의 편물 또는 직물의 한 실을 고리 모양이나 보풀 모양으로 한 피륙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신발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태양광 모듈용 강화유리 품목분류 판례해설

김희정 | 관세청 법무담당관실

I. 들어가며

「관세법」 제16조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하는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이와 같은 법리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 관세율표에서 규정하는 품목분류 원칙을 체계적으로 해석해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다.

II.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태양전지와 태양전지판을 제조해 판매하는 회사다.
2. 원고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태양전지판 제조에 사용되는 반사방지막 코팅(Anti-Reflection Coating, 이하 ‘AR 코팅’이라 한다)과 프리즘 패턴(Prismatic Pattern)이 형성된 저철분 강화유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율표상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 한다) 제7007.19-1000호[‘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중 ‘강화안전유리’, ‘기타’,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관세율 5.6~6%)]으로 신고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3.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HSK 제8541.90-9000호[‘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중 ‘부분품’, ‘기타’(WTO 양허관세율 0%)]로 분류돼야 한다는 취지로 수입 당시 신고납부했던 관세 등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했다(이하 피고들의 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III.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물품은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돼야 하므로, HSK 제7007.19-1000호로서 관세 등이 부과돼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과 방법

1)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에서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관세율표 통칙’이라 한다) 부분에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원칙을, 그 이하 부분에서 기본적인 6단위 품목번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S협약’이라 한다) 및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초로 해 품목을 10단위로 세분한 HSK를 고시하게 했다. 아울러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은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고시의 형태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는 HS협약 부속서인 ‘HS 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와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그대로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 삼았다(제3조). 위 고시는 상위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592 판결 참조).

2) 「관세율표 통칙」 제1호는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다. 이처럼 「관세율표 통칙」은 품목분류를 일차적으로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部), 류(類)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 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하는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4.14. 선고 2017두53767 판결 참조).

나. HSK와 HS 해설서 등 관련 법규의 내용

1) 제70류의 분류체계

HSK 제13부에서는 ‘돌·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을 규정하고, 그중 제70류에서 ‘유리와 유리제품’을 다룬다. 제70류에 관한 해설의 주(註)는 다음과 같다.

■ 제70류 유리(玻璃)와 유리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중략> ...

라. 제86류에서 제88류에 해당하는 운송 수단의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실드)·후방 창문과 그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에 한정한다).

마. 제86류에서 제88류에 해당하는 운송 수단의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실드)·후방 창문과 그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가열장치나 그밖의 전기·전자 장치를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중략> ...

총설

이 류에서는 각종 모양의 유리와 그 제품을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1호에서 제외된 것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서 특별히 분류하는 제품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

... <중략> ...

제조과정은 상당히 다르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주입법, (B) 롤법, (C) 플로트법, (D) 주조법 ... <중략> ... (E) 취입법 ... <중략> ... (F) 인상법 ... <중략> ... (G) 압축법 ... <중략> ... (H) 흡입램프를 사용한 램프가공 ... <중략> ... (I)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얻은 블랭크·구형 등을 필요한 제품으로 절단하는 방법)

... <중략> ...

이 류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 제조법이 분류상의 결정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제7003호는 주입법으로 제조한 유리나 롤법으로 제조한 유리에 한정하며 제7004호는 인상법으로 제조한 유리나 취입법으로 제조한 유리에 한정한다.

가) 제7001호에서는 깨진 유리를, 제7002호에서는 유리로 만든 구, 막대나 관을 규정하고,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는 시트(sheet) 모양의 유리를 규정하되,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는 그 제조법을 기준으로 다시 주입법과 롤법으로 제조한 유리는 제7003호로, 인상법과 취입법으로 제조한 유리는 제7004호로, 플로트 유리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는 제7005호로 각 분류한다. 이때 제7003호부터 제7005호의 경우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다만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나) 제7006호는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한다. 그 호에 관한 HS 해설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7006호 해설서

이 호에서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제시한 형태의 유리로서 다음 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또한 안전유리(제7007호)·유리로 만든 복층절연유닛(제7008호)·거울모양의 유리(제7009호)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중략> ...

(D) **제조 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를 들면 (생략)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조각한 유리
이 호에는 틀에 끼우지 않은 것·뒷면을 대지 않은 것이나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서 일차제품 모양의 판유리(예 : 특정 용도가 없는 판유리)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에 맞게 설계된 판유리의 제품도 포함한다.

... <중략> ...

마찬가지로 유리판이 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진 것으로서 기계나 장치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거나 가구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나 가구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다) 제7007호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로, 그 호에 관한 HS 해설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7007호 해설서

(A) 강화유리[toughened(tempered) glass]

강화유리는 다음을 말한다.

(1) 일정 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2)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chemically toughened glass)’로 알려져 있다] 이 유리는 위와 같은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 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

(B) 접합유리(laminated glass)

접합유리·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 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

... <중략> ...

강화안전유리(toughened safety glass)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 <중략> ...

이 호는 모양이 없는 유리(특정 모양(곡면이나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부린 안전유리로서 시계용의 것과 선글라스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은 제7015호에 분류한다. 안전유리로서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가 차량용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나 차량과 함께 분류하며 ; 마찬가지로 안전유리렌즈를 가지고 있는 안경은 제9004호에 분류한다.

2) 제85류의 분류체계

가) HSK 제16부에서는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을 규정하면서, 이를 크게 제84류와 제85류로 크게 나뉘, 제84류에서는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을, 제85류에서는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을 규정하고 있다. 제16부에 관한 HS 해설서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제16부

총설

(I)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A) 이 부에서는 제16부의 주나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이나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 보일러·보일러의 부속 기기와 여과용 기기 등)와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 <중략> ...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로 만든 기계류(예 :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와 플라스틱·목재·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

다만, 이 부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 <중략> ...

(e)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와 제85류의 총설 참조)

... <중략> ...

(II) 부분품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계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

나) 제8541호는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발광 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에 관한 HS 해설은 아래와 같다.

■ 제8541호 해설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

이 그룹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 <중략>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중략> ...

(2) 광전지(photovoltaic cell) : 이는 외부 전원을 요하지 않고 빛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셀리늄(selenium)을 기본 재료로 한 광전지는 주로 조도계와 노출계에 사용하며, 실리콘을 기본재료로 한 광전지는 고도의 출력을 가져 특히 제어나 조절장치에 사용하며, 광섬유 등을 사용하

는 통신장치에 있어서는 빛의 임펄스(impulse)를 검출하기 위한 것이다.
 광전지의 특수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
 (i) 태양전지(solar cell) : 이는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실리콘 광전지이다. 이들은 보통 집합하여 로켓과 우주탐사용 위성이나 산악구조용 송신기 등의 전원으로 사용한다.
 이 호는 또한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에 상관없이 태양전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동력을 전동기·전해조에 직접 공급하는 것과 같은 소자[예를 들면,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다이오드와 같이 단순한 것일지라도]를 부착한 패널이나 모듈은 제외한다(제8501호).

... <중략> ...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3) 관세청장이 제정한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는 ‘부분품’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1. 용어의 정의

- 가. ‘부분품’이란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을 말한다.
- 나. ‘부속품’이란 물품의 주체구성에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그 주체의 사용상 편리한 물품을 말한다.
- 다. ‘Standard accessory’란 부속품 중 일반적으로 기계의 조작 및 작동능률 향상을 위하여 주기계에 부수되는 표준 부속품을 말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는 국제간에 상품가치를 초월하여 거래되고 상품으로서의 거래단위가 될 수 없는 범위 내에 속하는 품목과 수량을 말한다.
- 라. ‘Spare part’는 ‘Standard accessory’를 제외한 해당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비품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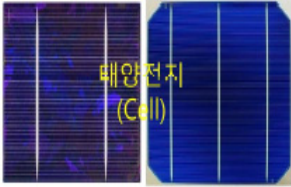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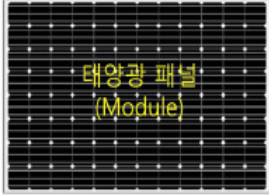

다. 태양전지와 이 사건 물품의 특성 등

1) 태양광 발전의 정의와 원리

가) 국립국어원은 ‘태양광 발전’을 “태양 전지에 의하여 태양광을 직접 전력으로 변환하는 발전 방식”으로, ‘태양전지’를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장치. 실리콘 같은 반도체의 광기전력효과를 이용한다”고 정의한다.

나) 태양전지(solar cell)는 다음과 같은 원리로 태양광을 전력으로 변환한다. P형과 N형을 접합한 실리콘 반도체에 태양광 에너지를 입사시키면 (-) 전하와 (+) 전하가 발생하고, (-) 전하는 N형, (+) 전하는 P형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양극에는 DC 전압이 발생하고, 이것을 부하에 연결함으로써 전류가 흐르게 된다.

다) 이런 태양전지 여러 개를 결합해 이른바 ‘태양전지판(solar panel/module)’을 만들고, 이를 건물 등 구조물에 설치해 발전에 사용한다.

태양전지 (Solar Cell, Solar Battery)	> 태양광 패널 (Solar Panel/Module)	> 태양광 발전
태양광선의 조사에 의한 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반도체 장치	태양전지를 세로 및 가로 방향으로 연결해 결합한 형태(개별 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전기가 모듈에 동시에 모이게 됨)	여러 개의 태양광 패널을 조합해 건물 등에 설치
		

라) 태양전지판을 만들기 위해 연결된 태양전지 양면에는 충격과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트를 부착한다. 그 위에는 덮개(cover)를 씌우는데, 내구성을 가지면서 태양광을 잘 통과시킬 수 있는 재료인 유리가 주로 사용된다. 이 사건 물품이 바로 태양전지 덮개 유리(cover glass)다.

2) 이 사건 물품의 기능, 성분, 가공 방식

가) 이 사건 물품은 판유리에 열을 가한 후 급하게 식히는 공정을 통해 강도를 높인 유리로 원고가 주문한 대로의 치수와 두께, 직각도, 만곡률, 모서리 형상과 표면, 색상으로 제작되고, 원고는 더 가공하지 않은 채 태양전지 덮개 유리 용도로 사용한다.

나) 태양전지 덮개 유리는 빛을 잘 흡수하도록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 철분(유리가 녹색을 띠게 한다)이 덜 들어있고, 태양의 고도가 낮을 때 입사되는 빛이 유리를 통과하지 못하고 도로 반사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한 가공이 이뤄진다. 이 사건 물품에도 ① 이산화규소 등 빛 반사를 줄이는 재료로 막을 덮고(AR 코팅), ② 표면을 미세한 크기의 수많은 프리즘 모양으로(프리즘 패턴) 가공해 빛의 굴절률을 최적화하는 가공이 돼 있다. 원고가 의뢰한 시험기관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에 적용된 AR 코팅과 프리즘 패턴은 그러한 가공이 되지 않은 덮개 유리보다 가시광선 반사율을 약 2%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라. 이 사건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부분품’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

1)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및 ‘부분’의 정의

가) HS 해설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태양전지는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으면 되므로 각각의 개체(cell)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로서의 기능과 특성을 구현하는 기본 단위가 되고, 반드시 여러 개가 결합해 태양전지판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부분’이라는 말의 뜻은 “전체를 이루는 작은 범위 또는 전체를 몇 개로 나눈 것”이고, 이 사건 예규도 그와 비슷하게 ‘부분품’에 관해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 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물품이 태양전지와 결합해 원고가 생산하는 완제품인 태양전지판이 되기는 하지만 태양전지 자체를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봤듯이 개개의 태양전지(cell)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로서의 기본 단위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이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부분품임이 그 자체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물품이 태양전지의 본질적인 기능 구현에 필요 불가결한지

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본질적이지자 고유한 역할은 태양광을 전력으로 변환하는 것인데, 이 사건 물품은 그러한 기능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이 사건 물품과 같은 덮개 유리가 없더라도 태양전지의 전력 변환 작용에는 영향이 없고, 오히려 아무런 덮개도 없다면 태양광을 직접 그대로 받아 전력으로 바꿀 것이므로 본질적인 기능의 효율 면에서는 가장 낫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물품이 태양전지의 본질적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하지만 태양전지를 그대로 외부에 드러내면 충격이나 환경 변화 때문에 파손될 수 있으므로 발전효율이 떨어짐을 감수하고서라도 덮개를 씌우는 것이고, 그러한 기능을 충족하면서도 태양광 흡수에 장애가 되는 면을 최소화하기 위해(덮개가 없을 때보다 태양광 흡수율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특수한 소재와 가공 방식을 사용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물품에 최신의 광학 기술이 반영됐더라도 일차적이고 주된 기능은 여전히 ‘보호구(protector)’다.

3) 수입신고 시의 형상

가)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물품은 수입신고 시 태양전지와 결합된 상태가 아니라 판 모양의 유리로 제시된다. 앞서 봤듯이 이 사건 물품이 원고의 주문에 따른 크기와 형상을 갖추도록 가공되기는 했으나, 판 모양 강화유리라는 본질에

변함이 없는 이상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태양전지 덮개로 사용하는 것이 이를 수입한 원고에게 가장 합리적인 사용 방법일 뿐이므로, 태양전지 덮개 유리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수입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결국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HS 해설서의 제7007호 부분에서 “이 유리는 위와 같은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 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처럼 용도에 맞춘 규격으로 제작하는 것은 강화안전유리의 전반적인 특성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물품이 태양전지판에 맞게 주문제작됐다는 사정이 그 ‘부분품’임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에서 볼 HS 품목분류의견서상 스마트폰 커버 글라스와 스마트 냉장고 디스플레이 커버 글라스 역시 특정 스마트폰, 특정 스마트 냉장고에 결합될 예정인데도 이를 제7007호로 분류하고 있다.

다) HS 해설서는 제7006호에 관해 “유리판이 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진 것으로서 기계나 장치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거나 가구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나 가구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고 하고, 제7007호에 관해서도 “안전유리로서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나 차량용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나 차량과 함께 분류”한다고 해 안전유리가 다른 제품과 결합돼 제시된 경우에는 부분품으로 보도록 규정하므로, 설령 기계나 장치의 일부가 될 유리라도 그 제품과 결합돼 제시되지 않은 경우까지 반드시 부분품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제70류의 주에서도, 차량이나 항공기 등에 결합됐거나 결합될 유리제품을 제70류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지만 제85류의 품목에 결합될 유리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러한 해설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물품이 태양전지판에 결합된 채 제시됐다면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부분품으로 취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 4)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을 그대로 관세율표상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부분품으로 포섭하기는 어렵다.

마. ‘안전강화유리’로서 이 사건 물품 분류의 적정성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AR 코팅과 프리즘 패턴이 제7007호에서 예정한 가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AR 코팅과 프리즘 패턴의 추가 가공이 이뤄진 안전강화유리라고 하더라도 제7007호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함이 옳다.

1) 제70류는 유리를 형태에 따라 제7001호(깨진 유리), 제7002호(구나 막대 모양의 유리), 제7003호에서 제7005호(시트 모양의 유리)로 분류한 뒤, 다시 시트 모양의 유리를 제조 방식에 따라 제7003호에서 제7005호로 분류하고, 제7003호에서 제7005호의 시트 모양 유리에 추가 가공을 한 것을 제7006호로 분류하고 있다.

2) 제7006호에서는 표제에서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에 추가 가공이 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반면, 제7007호에서는 이러한 명확한 기재가 없어 제7007호의 범위에 제7001호부터 제7006호까지의 유리 중 어느 범위의 유리가 포섭되는지가 표제 자체로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① HS 해설서에서 “이 호는 모양이 없는 유리과 특정 모양(곡면이나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유리의 모양을 불문한다는 취지로 규정돼 있는 점, ② 제70류에서 유리를 모양에 따라 우선 분류한 후, 추가가공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하나씩 표제를 늘려가면서 규정하는 점진적·중첩적인 분류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7007호는 제7001호부터 제7006호의 유리를 포함해 안전강화유리로서의 추가 가공이 된 경우를 모두 포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원고는, 제7007호에서는 제7003호 내지 제7005호에서와 달리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라는 취지의 문구가 없기 때문에 AR 코팅과 같은 무반사층 가공이 추가된 안전강화유리는 제7007호에서 예정하는 가공의 범위를 벗어나 그 호에 포섭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해석한다면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의 추가 가공이 된 안전강화유리는 전부 제7007호에 해당할 수 없고 따로 분류할 방법도 없게 되므로, 품목분류에 큰 공백이 생긴다. 또한 HS 해설서는 제7005호에 관해 “이 호의 유리는 … <중략> … 제7007호 안전유리의 제조에 사용한다”고 하므로, 결국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 가공이 된 제7005호의 유리 역시 제7007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지 않는다.

4) 관세청장이 제정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 2]인 ‘HS품목분류의견서’도 ① 안전강화유리로 제작된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커버유리를 AR 코팅을 비롯한 추가 가공이 돼 있으나 제7007호로 분류하고, ② 스마트 냉장고 디스플레이 커버유리 역시 비전도성 차폐 잉크 인쇄 및 지문방지 코팅 등 추가 가공이 돼 있는데도 제7007호로 분류하고 있다.

5)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AR 코팅이 된 판 모양 유리는 제7003호에서 제7005호에 포함되고, 여기에 안전강화유리로서의 추가 가공이 된 유리는 제7007호로 분류할 수 있다.

6)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프리즘 패턴은 제7006호에서 예정하는 가공방식에 포함될 수 있다.

가) 제7006호에서는 “(D) 제조 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 <중략> …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조각한 유리)”를 포함하고 있고, 프리즘 패턴은 기본적으로 유리 표면에 미세한 틈을 조각해 넣는 방식으로 보이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프리즘 패턴은 고도의 광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매우 특수한 가공 방식이므로 제7006호에서 예정하고 있는 가공 방식의 범위를 벗어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프리즘 패턴의 설계를 위해 고도의 광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가공방식 자체는 유리 표면에 미세한 틈을 조각해 넣는 방식으로서, 제7006호가 예정하고 있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게다가 원고는 이러한 프리즘 패턴의 설계가 고도의 광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서 기밀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그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것도 아니다).

다) 「관세율표 통칙」 제2호는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3호는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하고,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관세율표 통칙」 제1호(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에 따라 물품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2호와 제3호가 차례로 적용되는데, 이 사건 물품은 제7007호 등의 용어와 관련 주에 의해 안전강화유리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봐 「관세율표 통칙」 제3호에 따라 분류될 호를 결정할 여지는 없다.

IV. 결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경우 강화유리에 반사방지를 위한 코팅 및 패턴 가공이 돼 있는데 관세율표 제7007호는 제70류의 다른 호와 달리 코팅 공정이나 패턴 가공을 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7007호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이에 따라 제7007호로 분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세율표 제70류에서 유리를 모양에 따라 우선 분류한 후, 추가가공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하나씩 표제를 늘려가면서 규정하는 점진적·중첩적인 분류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7007호는 제7001호부터 제7006호의 유리를 포함해 안전강화유리로서의 추가 가공이 된 경우를 모두 포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이 관세율표 해석에 있어 해당 호가 속한 류의 성격을 바탕으로 관세율표를 체계적으로 해석한 대상 판결은 품목분류의 영역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식품 관련 HS 2022 해설서 개정 사항

이 희 영 |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



※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최근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제8차 HS협약 개정안(HS 2028)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한편, 현행 HS 2022 해설서에 대한 개정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HS 2022 해설서 개정 사항은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통해 국내 법령으로 수용됐다.

특히 이번 고시에서는 식품 관련 HS 2022 해설서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일부 품목에 대해 새로운 ‘함량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품목분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는 실무에서 품목분류 판단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개정 사항은 실무상 분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HS 2022 해설서 개정 사항 중 식품 분야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입된 함량 기준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제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HSK		HS 2022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10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10	두부
	90	기타
	20	단백질 농축물
	30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90	기타

WCO 제70차 HS위원회에서는 품목분류의견서 ‘인스턴트 식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해 재분류 가능성을 검토했다(아래 참조). 이는 해당 물품이 단백질 농축물 51% 외에 카제인염 47.5%를 포함하고 있어 총 단백질 함량이 최대 90%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2106호 소호 분류 기준인 단백질 농축물의 수준과 단백질 함량 산정 시 고려 대상 성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제2106호 해설서 개정안이 논의됐다.

이 개정안은 과학소위원회의 기술자문 등을 거쳐 **제2106.10호의 단백질 농축물에 대한 범위가 소호 해설로 신설됐다**. 이를 통해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 조제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으며, 소호 제2106.10호와 제2106.90호 간의 구분에 대한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참고로 품목분류의견서 ‘인스턴트식품’은 삭제됐다.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2] HS품목분류의견서(국문)

2106.10	1. 탈지대두단백질 농축물 탈지한 대두 플레이크에서 발효성 당질과 향원을 제거해서 가열처리하고 분쇄하여 체로 걸러 얻는 것으로서, 건조한 상태에서 단백질 함유량이 약 69~71%인 것이다. 이 농축물은 텍스처화되지 아니한 것으로 식용 또는 동물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의견서 2304.00/1 참조
	2. 조제품 분말 형태로서, 유리대두단백질(75.05%), 유장단백질(80%), 농축물(24.5%), 바닐라 향(0.25%) 및 이산화규소(0.20%)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량 240g 용기에 소매 포장되어 있다. 이 물품의 총 단백질 함유량은 건조 전 중량의 85.9%(± 1.0%)다. 이 물품은 다른 식품 또는 음료와 함께 소비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5g, 1일 1회 내지 4회). 이 물품은 바닐라의 향과 맛이 있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
	3. 분말상의 조제 식료품 대두유리단백질(93.425%), 단백질 80% 함유 유장농축단백질(레시틴 함유)(6.125%), 향료(바닐라 크림) 및 이산화규소를 함유한 것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
2106.90	5. 인스턴트 식료품 (현재 삭제됨) 탈대두단백질농축물 51%, 카제인염 47.5%, 대두레시틴 1%, 바닐라 오레오레진 0.5%를 함유한다.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6.10호에는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이 세분류된다. 이번 고시에서 해당 호 해설서 (6)항에 문구 일부가 삭제됐으며, 소호 제2106.10호의 해설이 추가됐다. 개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페이지	HS 2022(현행)	HS 2022(개정)
IV-2106-1 Item(6)	(6)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단백질 가수분해물로서 식품 조제에 사용하는 것(예 : 향미료로 사용하는 것 ; 탈지(脫脂 : defatted) 대두의 고운 가루의 특정 성분을 제거하여 얻은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 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하는 것; 대두의 고운 가루와 그 밖의 단백질 물질로서 텍스처화(textured)된 것. 그러나, 비텍스처(non-textured)된 탈지(脫脂 : defatted) 대두의 고운 가루는 식용에 적합한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하며(제2304호), 유리단백질(protein isolate)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504호).	6)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단백질 가수 분해물로서 식품 조제에 사용하는 것(예 : 향미제), 조제 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되는 단백질 농축물; 대두의 고운 가루와 그 밖의 단백질 물질로서 텍스처화된 것. 다만, 이 호에는 텍스처드화 되지 않은 탈지 대두의 고운가루는 식용에 적합한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하며(제2304호), 유리단백질(protein isolate)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504호).
IV-2106-1	[소호 해설] 추가 신설	[소호 해설] 소호 제2106.10호 이 소호에서 ‘ 단백질 농축물 ’이란 그 원료에 관계없이 총 건조 중량 단백질 함량(N×환산계수)이 65% 이상인 텍스처드화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말한다. 이러한 단백질 농축물 조제품에는 향미제, 안정제, 보존제 등의 첨가제가 함유될 수 있다.

즉, “탈지 대두의 고운 가루의 특정 성분을 제거하여 얻은”이라는 문구가 삭제되면서, 단백질 농축물을 특정 원료 및 공정으로 한정하던 예시가 사라졌고, 이에 따라 단백질 농축물의 개념이 확장됐다.

또한 제2106.10호 소호 해설이 추가됨에 따라, ‘단백질 농축물’은 원료의 종류와 관계없이 **텍스처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조 중량 기준 단백질 함량이 65% 이상인 것으로 한정됐으며, 이와 함께 단백질 농축물에 향미제, 안정제, 보존제 등의 첨가가 허용된다.**

2. 제2202호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HSK			HS 2022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1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9		기타
	91	000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
	99		기타
		1000	인삼음료
		2000	과실주스 음료

WCO 제71차 HS위원회에서는 제2202호 음료의 소호인 제2202.10호 및 제2202.99호의 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음료에 첨가된 과실주스가 단순한 향미 부여 목적에 해당하는지 또는 과실주스를 기반으로 한 음료의 특성을 유지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과일주스 21%를 함유한 무탄산 음료’가 상정됐다.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2] HS품목분류의견서(국문)

2202.10	1. 과일주스 21%를 함유한 무탄산 음료 과일주스 21% 함유한 무탄산 음료로 소매용으로 판매 성분조성은 다음과 같음 : 물, 설탕, 농축액으로 만든 다양한 과일주스(포도, 레몬, 블랙커런트, 사과, 체리, 용과), 천연 향료, 색소(캐러멜 E150d) 및 인삼추출물로 구성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
---------	--

논의 결과, 해당 물품은 제2202.10호로 분류하기로 결정됐으며, 제73차 HS위원회에서 채택된 분류의견서는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로 국내에 수용됐다. 이 결정과 관련해 제2202호의 소호 단위 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해설서 개정안이 함께 논의됐다. 특히 제2202.10호의 ‘맛과 향을 첨가한 물’에 해당하는 음료는 과일주스 종류에 따라 향미 부여 가능성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실주스 함량 기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과실주스(또는 견과류 주스)의 함량을 ‘최종 제품 부피 기준 25%’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으며, 해당 기준은 농축과즙이 아닌 천연과즙 함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관세율표 제2202.10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나 탄산수를 포함한다)’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된다. 해당 소호에는 레모네이드·오렌지아이드·콜라와 같은 음료가 포함되며, 통상 과실주스·견과류 주스 또는 혼합 추출물을 첨가해 향미를 부여한 제품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과실주스 또는 견과류 주스의 함량이

최종 제품 부피 기준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음료는 제2202.99호의 기타 과실주스 음료로 분류돼 소호 단위의 구분이 명확해졌으며, 개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페이지	HS 2022	HS 2022 (개정)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나 제2201호에 분류하지 않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를 분류한다(이 류 주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나 제2201호에 분류하지 않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를 분류한다(이 류 주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IV-2202-1 Part(A) Item(2)	<p>(A)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香)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특히 이 호에 포함한다. (1) 감미나 맛이나 향(香)을 첨가한 광천수(천연이나 인조) (2) 레모네이드(lemonade)·오렌지수(orangeade)·콜라(col)와 같은 음료 : 보통 음료수(감미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과실주스·견과류 주스·과실에센스나 혼합 추출물(extract)로 향미(香味)를 첨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이것에 구연산·주석산을 첨가한 때도 있다). 이 같은 음료수는 때로는 이산화탄소가스를 넣으며, 보통 병이나 그 밖의 밀폐용기에 넣어서 제시한다.</p>	<p>(A)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香)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특히 이 호에 포함한다. (1) 감미나 맛이나 향(香)을 첨가한 광천수(천연이나 인조) (2) 레모네이드(lemonade)·오렌지수(orangeade)·콜라(col)와 같은 음료 : 보통 음료수(감미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과실주스·견과류 주스·과실에센스나 혼합 추출물(extract)로 향미(香味)를 첨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이것에 구연산·주석산을 첨가한 때도 있다). 이 같은 음료수는 때로는 이산화탄소가스를 넣으며, 보통 병이나 그 밖의 밀폐용기에 넣어서 제시한다. 이 그룹의 음료에 포함된 과실 또는 견과류 주스의 최대 함량은 해당 과실 또는 견과류 주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최종 제품의 부피 기준으로 25%를 초과할 수 없다.</p>

관세율표 제2202호 HSK 10단위 분류는 국내 식품 분류체계인 식품공전상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다. 식품공전에 따르면, ‘과일·채소류음료’란 ‘과일 또는 채소를 주원료로 해 가공한 것으로서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농축과·채즙, 과·채주스, 과·채음료를 포함한다. 이 중 ‘과·채주스는 과·채즙이 95%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과·채음료는 과일즙, 채소즙 또는 과·채즙 10%이상을 말한다.

이에 따라 관세율표 제2202호 내에서 ‘과일주스를 함유한 음료’는 과실주스 함량에 따라 세분류된다. 즉 과실주스 함량이 25% 이하인 음료는 제2202.10호에 분류되며, 과실주스 함량이 25% 초과하고 95% 미만의 음료는 제2202.99-2000호 과실주스 음료에 분류된다. 또한 식품공전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제2025-56호)」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의 원료나 성분에 관한 규격과 기준을 수록하고 있다.

상 과·채음료에 해당하더라도, 과실주스 함량이 25% 이하인 경우에 제2202.99호가 아닌 제 2202.10호로 분류될 수 있다.

이번 HS 2022 해설서 개정은 품목분류 실무에서 논란이 많았던 영역에 대해 함량 기준을 명확히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2106호와 제2202호 사례에서 보듯이, 원료 명칭이나 제조 방식보다 제품의 실제 성분 구성과 함량을 기준으로 분류 판단이 이뤄지도록 기준이 정비 됐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국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통해 수용됨으로써, 품목분류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실무상 해석 혼선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개정 관련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요구된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동물성 비료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우리가 즐겨먹는 치킨이나 오리 등의 요리 뒤에는 엄청난 양의 부산물이 남는다. ‘깃털’도 부산물 중 하나다.

깃털은 그냥 버려지는 부산물로 보이지만, 사실은 단백질 덩어리라는 점에서 굉장히 쓸모가 많다. 문제는 깃털이 그냥 단백질이 아니라, 자연계에서도 손꼽히는 질긴 단백질 구조인 케라틴(Keratin)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케라틴은 너무 단단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잘 분해되지 않는다. “머리카락이 잘 안 썩는다”라는 말처럼, 깃털도 웬만한 환경에서는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깃털을 잘만 이용한다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는 원료가 된다. 깃털을 산·알칼리 처리나, 혹은 효소를 가해 단백질 구조를 잘게 쪼개는 ‘가수분해’ 공정을 거치면, 사료·비료·토양개량제·아미노산 공급원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깃털 가수분해물은 겉보기엔 그냥 ‘분말’ 혹은 ‘단백질 원료’일지라도, 실제로는 가공 정도, 용도(사료용·비료용·공업용), 성분 구성(아미노산, 질소 함량 등)에 따라 세번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제품이라도 사료첨가물처럼 사료로 봐야 하는지, 유기질 비료로 봐야 하는 것인지 등 최종적으로 어느 산업에 속하는 물품인지를 두고 품목분류가 갈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다음 사례로 깃털 가수분해물의 품목분류를 알아보자.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깃털을 염산으로 가수분해하고 중화, 여과 등의 공정을 거친 깃털 가수분해물로 ‘그 밖의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에 해당하는 제2922.50-9000호로 신고했다.

깃털을 가수분해하면, 케라틴의 긴 단백질 사슬이 절단되면서 1차적으로 ‘펩타이드(Peptide)’가 생성된다. 펩타이드는 단백질이 부분적으로 분해된 저분자 단백질 조각으로, 케라틴 특유의 난분해성이 감소하고 물에 대한 분산성·용해성이 향상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가수분해 조건이 강하거나 반응시간이 길어질 경우, 펩타이드는 추가로 절단돼 최종적으로 ‘자유아미노산’의 형태로 전환된다. 결과적으로 깃털 가수분해물은 주로 ‘펩타이드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질소 원(단백질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깃털 가수분해물은 가수분해 이후 생성된 물질의 성격과 용도가 품목분류에서 결정적인 판단

요소가 된다. 구체적으로 ① 사료용 단백질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2309호, ② 단백질 가수분해물 자체로 사용되는 경우 제3504호, ③ 유기질 비료 또는 농업용 질소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3101호 등으로 검토될 수 있다.

다음 사례를 보자. 부산물을 가수분해해 만든 것으로 각각의 용도 및 성분 함량에 따라 각기 다른 세번으로 품목분류 된 사례다.

어류부산물을 가수분해, 저온살균 및 건조 후 분쇄한 갈색계 분말(건조 기준 단백질 함량 약 75%) - 용도 : 사료용	제2309.90-9090호
동물의 털(주로 돼지털이나 닭털)을 고온, 고압에서 가수분해시킨 후 농축 및 정제해 건조한 갈색계 분말상	제3101.00-3000호
연어 부산물(내장, 머리 등)을 효소 가수분해한 황색 분말상의 단백질 농축물(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약 92%) - 용도 : 사료용	제3504.00-2090호

특히, 제35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단백질의 함량이 고농도로 함유돼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 물품은 **단백질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 깃털을 가수분해한 것으로**, 제3101호에 부합하는 물품이다.

관세율표 제3101호에는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가 분류되며, 제3101.00-3000호에는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를 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HS 해설서 (b)에서 “이 호에는 동물성 물품·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 처리를 하여 비료로 전환된 것[제3103호의 뼈와 인산석회(bone superphosphates)는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5)에서 “가죽을 황산으로 처리하여 얻어지는 물품”을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동물성 물품을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101.00-3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AMINO-ALCOHOL -PHENOLS	2922.50-9000 (FCN 0%)	Fertilisers produced by chemical treatment of animal products	3101.00-3000 (FCN 0%)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3월
발간 예정

관세·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4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미발효)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징액환급률표 개정사항 수록
-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www.kctdi.or.kr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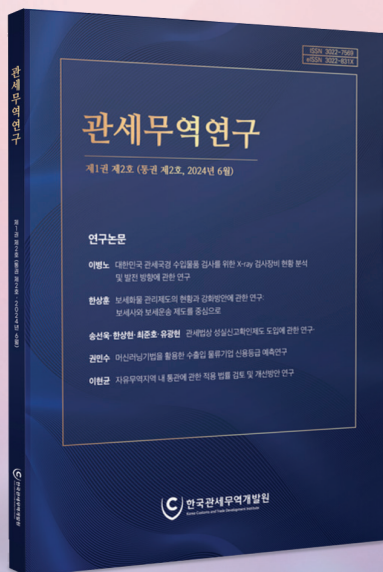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 서비스

60여년 축적한 관세·무역 전문 도서를
이제 온라인에서 바로 열람하세요!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https://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